

신정훈 “여론조작, 김영록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지사 경선후보가 “김영록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신 예비후보는 5일 오전 11시 30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예비후보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자신에 대해 지지를 공식선언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가 언급한 정치인들은 예비후보 선거

“당대표·국회의장 등 의례적 인사말 불구 ‘대세론’ 근거로 삼는 허위사실 공표” 주장

사무소 개소식에 의례적인 인사말 또는 축하 영상을 보냈을 뿐, 자신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선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언론매체가 이를 기사화해서 ‘대세론’의 근거로 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전남도지사 후보 김영록, 동부권 정책공약 발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했다”면서 “위 게시물은 ‘전남도지사 후보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로서’,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라며, 자신을 ‘전남도지사 후보’라고 공표해 당선될 목

적으로 신분·직업·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자격인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 커버사진을 업데이트 하면서 자신을 ‘전라남도 도지사’라고 공표, 당선될 목적으로 신분·직업·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본다”면서 “이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후보 결정 이후 첫 행선지로 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에게 헌화분향했다. 강 후보가 묘지 입구 민주·문명명패에 글을 남기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5·18정신 구현자돼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된 후 첫 행선지로 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민형배, 최영호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5·18 묘지를 찾은 강 예비후보는 방명록에 “5·18 정신은 광주이다”라고 적은 뒤 “광주시장은 광주정신인 5·18정신의 구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용을 소개하고 “5·18정신을 표출화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로 실현시키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제도와 법의 완결성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5월 문명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공동선대위원장은 “최영호 강기정 민형배가 하나로 만나 ‘최강 민주후보 강기정’을 탄생시키고 5월 영령 앞에 보고 드린다”며 “광주를 바꿀 더 큰 힘으로 광주정치를 새롭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5월 정신을 가슴에 안고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스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청년, 꿈과 비전을 가져라”

전남대서 ‘청년일자리와 우리의 미래’ 특강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5일 전남대학교에서 ‘청년일자리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함께 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 “가슴에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명확한 꿈이 있어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그 노력이 곧 성공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 후보는 “안정적인 기업

취직만을 고집하지 말고 젊은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창업, 나아가서는 새로운 직종을 개척하는 ‘창직’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도 기술만 있으면 창업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청년들이 부담없이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에코볼 세대의 노동시장 대량 진입과 채용 비리 등 불공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이 후보는 “나라 지역의 미래는 리더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한 나라를 하차해 바꾸고 있을 때, 광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생활정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5일 전남대학교에서 ‘청년일자리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양향자 “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의 광주 유치할 것”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5일 글로벌,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중·대북관계를 중시하고 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글로벌·통일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우선 C40 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 개최를 공약했다. 그린드디자인인 ‘광주 센트럴파크, 51km 빛의 타워’ 조성 및 건립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도시 시장들의 협의체인 C40 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성시장이라는 장점을 심본 활용한 정책공약도 내놨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대표하는 여성시장들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인 워민포클

라이미(Women4Climate)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파리, 워싱턴 DC, 스톡홀름, 바르셀로나, 바르샤바, 시드니, 케이프타운, 로마 등 전 세계 15개 도시 여성시장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해제 언급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해빙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토지매입 이후 중단됐던 주(駐) 광주 총영사관 신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외사무소 추가 개설을 통한 외자 유치,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광주시 통일센터 유치, 균형 잡힌 통일교육을 약속했다.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 도시공원 분야 3대 핵심정책 제시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식목일인 5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휴식권과 건강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도시공원 분야 3대 핵심정책을 제시했다.

나 후보가 제시한 3대 정책은 ▲ 도시공원 공유선언 ▲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 ▲ 도시공원 공공성 확보 강화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 128조 ‘토지 공공성’ 조항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정부는 도시공공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당 단체장이 시정을 이끄는 광주에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

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의 허파 격인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중단을 시작으로 국비 지원, 지방재정 특별회계 편성, 시민토지신탁운동 등 다양한 공공재원 마련을 통해 도시공원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나 후보는 “광주에서도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광파리가 열섬 해결을 위해선 중앙·중외·일곡공원 등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 제한해달라” 직접 가처분 신청

오늘 국정농단 사건 1심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예정된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강철규(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전날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며, 강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맡으려면 당사자에게 수임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재판 생중계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

호인이었던 도태우(49·41기) 변호사도 지난 3일 법원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툰 여지가 있다”며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재윤)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일 법정에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선고 과정을 중계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